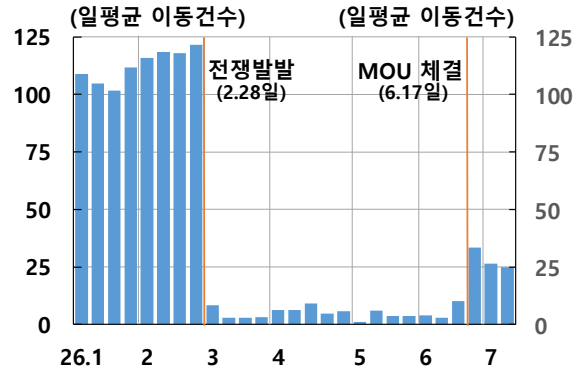
Ⅰ-2. 중동전쟁 이후 실물경기 및 고용 상황

(조사국 고용동향팀 · 국제무역팀 · 재정산업팀)

2월말 발발한 중동전쟁은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호르무즈 통항이 전면 봉쇄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망 압력이 가중되었다.[그림 1-2] 특히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원자재 조달 차질로 인한 어려움이 컸다. 6월 미·이란 간 MOU 체결 이후 전쟁이 수습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7월 들어 재격화되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중동전쟁이 국내 주요 산업 생산과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향후 중동상황이 진정될 경우 어떠한 회복 흐름을 나타낼지 점검해 보았다.**

중동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통항 차질, 국제유가 급등 등 충격이 발생

[그림 1] 호르무즈해협 통항량



자료: Bloomberg

[그림 2] 국제유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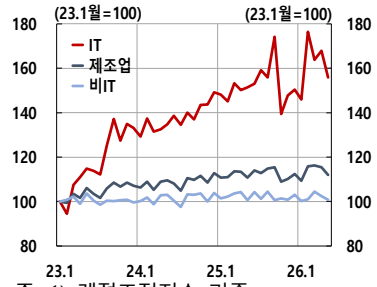
주: 1) 브렌트유 기준
자료: 한국석유공사

주요 산업의 경기와 고용 흐름은?

1. 지난 몇 년간 국내 경기는 IT 제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반면 여타 부문은 성장세가 더딘 불균등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IT 제조업은 2023년 극심한 침체에서 회복한 뒤 AI 확산의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성장세가 가팔라졌다.[그림 3] 반면 비IT 제조업은 중국과의 경쟁 심화, 미 관세정책 등으로 장기간 횡보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산업별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비IT 부문이 대체로 부진했음에도 IT를 중심으로 전체 성장세는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년 1~5월중 IT 생산은 AI 확산에 따라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철강·금속, 기계는 미국의 데이터센터,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 등에도 내수 부진으로 소폭 개선에 그쳤으며, 비금속시멘트 등, 고무·플라스틱, 정유, 자동차 등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그림 4-5]

IT·비IT 생산 차별화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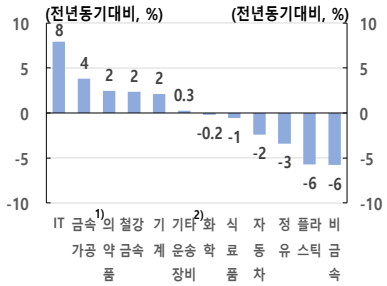
[그림 3] 제조업 생산[1)]



주: 1) 계절조정지수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금년에도 IT·비IT 차별화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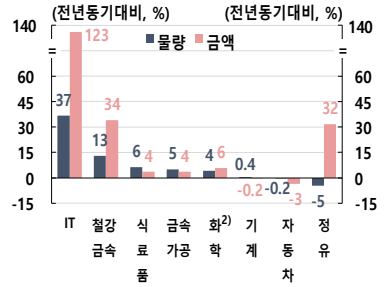
[그림 4] 금년 1~5월중 업종별 생산[1)2)]



주: 1) 무기류 포함
2) 선박 등
자료: 국가데이터처

최근 반도체 단가 급등으로 수출에서의 IT·비IT 차별화 심화

[그림 5] 금년 1~5월중 품목별 수출[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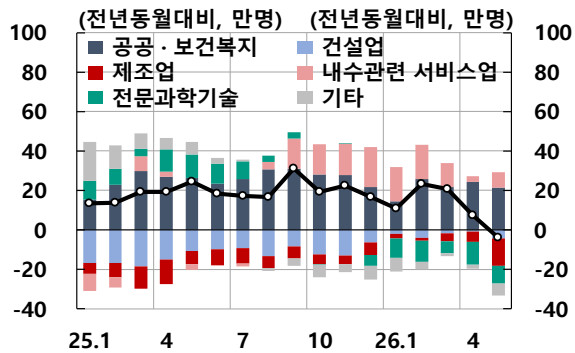


주: 1) 물량증가율 순으로 정렬
2) 의약품 포함
자료: 한국은행

2. 고용의 경우에는 제조업 등이 감소세를 나타낸 반면 서비스업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해 왔다. 제조업은 노동절약적 기술변화AI 확산, 자동화 등,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그림 6] 반면 서비스업은 인구구조 변화 영향으로 돌봄 관련 일자리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전체 고용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20만명 내외의 증가세를 지속해 왔다.[그림 7] 그러나 금년 1/4분기까지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내던 고용은 중동전쟁 발발 이후인 4월 고용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데 이어 5월에는 감소로 전환하였다.

산업별 고용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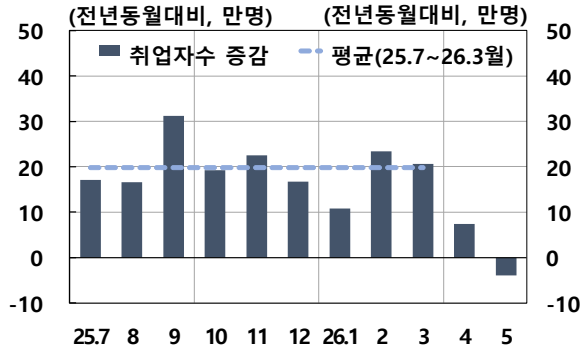
[그림 6]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

취업자수 금년 5월 감소 전환

[그림 7] 취업자수 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

중동전쟁은 국내 주요 산업과 고용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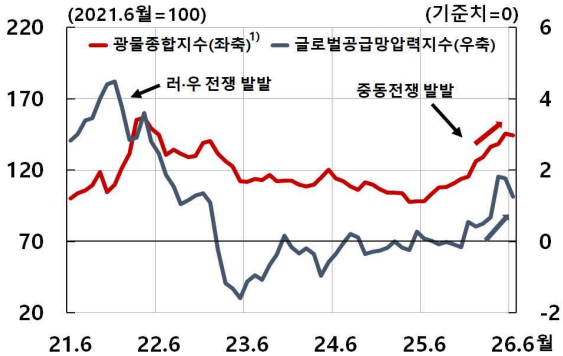
파급경로

3. 중동전쟁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산 및 수출,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석유제품의 공급망 교란은 국내 정유·화학 산업의 생산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며, 관련 전방산업들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그림 8-9] 원유 수입 차질은 이를 직접 투입하는 정유 산업의 생산 감소로 직결된다. 또한 원유를 정제해 만들어지는 휘발유, 경유, 항공유

등의 공급부족과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여타 산업에도 영향이 파급된다. 화학산업의 주요 원재료인 나프타 수급에 제약이 생기면 화학 산업뿐 아니라 전방산업인 건설, 자동차, 플라스틱, 비금속 제조업 생산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첨단 제조업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브롬·헬륨·알루미늄 등의 공급 차질은 관련 산업의 생산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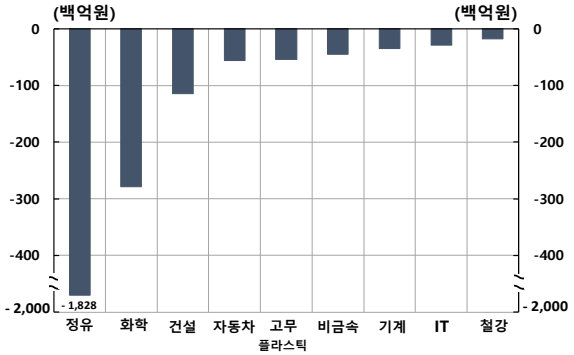
중동전쟁에 따른 핵심 원자재 공급망 교란은 산업의 생산차질로 파급

[그림 8] 전쟁에 따른 공급망 교란



주: 1) 광물종합지수는 국내 산업에 중요한 광물 15종의 가격변동을 종합한 지수(비용측면의 공급차질을 의미)
자료: 한국광해광업공단, FRB of New York

[그림 9] 석유류 공급 차질의 생산 익스포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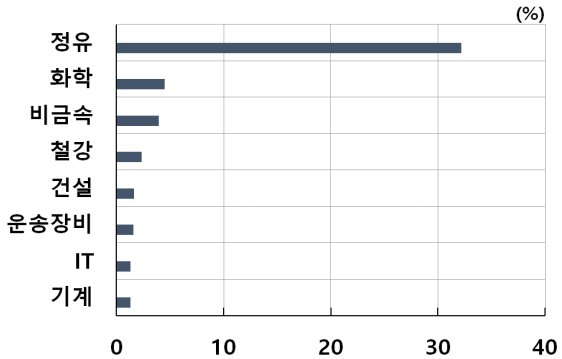


주: 1) 석유류 투입이 10% 감축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산업연관분석1)으로 생산파급 규모를 시산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23), 저자 추정

4. 국제유가 등의 상승은 에너지 가격에 민감한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비용 증가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그림 10-11] 예를 들어, 화학, 철강 등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원유, LNG 가격 급등에 취약하다. 특히 중소기업은 협상력이 낮은 경우가 많아 비용 상승을 가격에 전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용 충격에 더욱 취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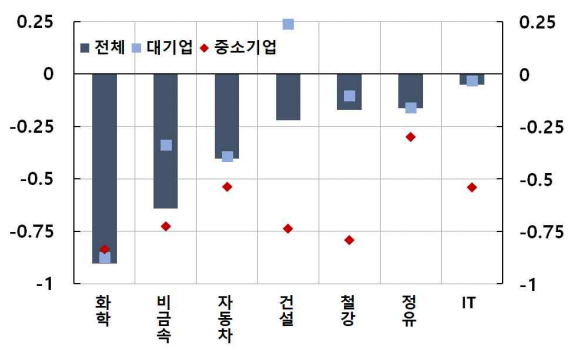
에너지원 가격 상승은 산업의 생산비 상승압력과 수익성 하락 야기

[그림 10] 에너지원 가격 상승의 생산비 익스포저1)



주: 1) 에너지원(원유·LNG) 가격이 50% 상승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산업연관분석으로 생산비 상승률을 시산2)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23), 저자 추정

[그림 11] 유가와 수익률 간 상관계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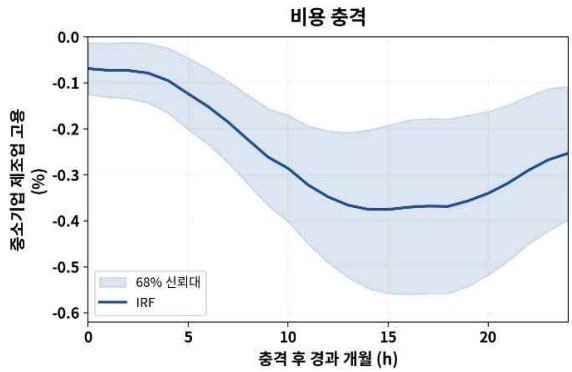
주: 1) 2010~24년 기간 유가 변동률(두바이유, %)과 수익률 증감률(%p) 간 상관계수, 수익률=(매출액-재료비)/매출액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저자 추정

1) 특정품목의 공급충격이 연관 산업에 파급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공급충격(Ghosh-Quantity) 모형을 활용하였다. (공급충격 모형: $\Delta X=(1-B)^{-1}\Delta S$ (ΔX = 산업별 생산변화, B = 중간배분계수, ΔS = 최종수요 비율을 감안한 공급변동벡터))
2) 수입원자재의 가격충격이 국내 산업의 생산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가격파급(Leontief-Price) 모형을 활용하였다. (가격파급 모형: $\Delta P^{d}=(I-A^{d\prime})^{-1}(A^{m\prime}\Delta P^{m})$ (ΔP^{d} =산업별 국산품 단위가격 변화, $A^{d\prime}$ = 국산품 투입계수의 전치행렬, $A^{m\prime}$ = 수입품 투입계수의 전치행렬, ΔP^{m} = 수입품 가격변화벡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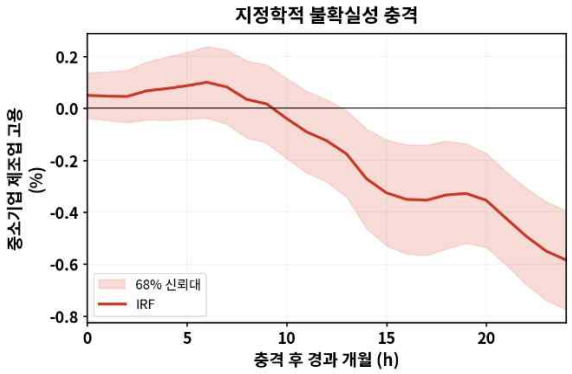
5. 고용의 경우 비용 충격뿐 아니라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심리위축의 영향도 크게 받는다. 전쟁의 영향으로 원자재, 물류 비용이 증가하면 기업의 구인 유인은 약화되고, 특히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는 생산 감소가 없더라도 신규 채용을 보류하거나 결원을 미충원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소기업은 금융여건 악화와 불확실성 충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2000년부터 2025년까지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비용유가 충격과 불확실성 충격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4], 두 충격은 중소 제조업체 고용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5] [그림 12-13]

비용 충격과 불확실성 확대는 중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에 부정적 영향

[그림 12] 비용(유가)충격이 중소 제조업체 고용에 미치는 영향[1)2)]



[그림 13] 불확실성 충격이 중소 제조업체 고용에 미치는 영향[1)2)]



주: 1) 음영은 68% 신뢰구간
2) 실선은 각 충격이 1 표준편차 발생시 충격이 없었을 경우와 비교해 각 변수의 수준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누적 충격반응함수
자료: 저자 추정

실제 파급영향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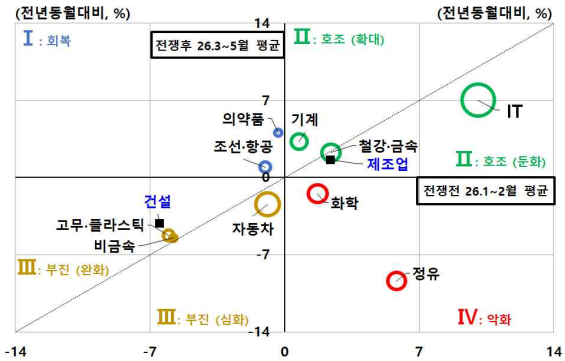
6. 생산 측면에서 보면, 금번 중동전쟁의 영향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정유·화학 산업에서만 가시적으로 나타났으며, 여타 전방산업으로의 파급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7. 정유·화학 산업은 부정적 영향을 뚜렷하게 받았으며, 건설업에서도 일부 차질이 나타났다. [그림 14-15] 정유·화학 생산은 원자재 수급 차질로 인해 상당폭 감소하였다.[그림 16-18] 생산 감소의 영향은 주로 수출로 파급되었는데, 이는 기업들이 생산 물량을 내수 부문에 우선 공급했기 때문이다.[그림 19-20]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 비금속 등 전방산업은 소재·부품 조달 차질이 제한적이어서 파급 영향이 크지 않았다. 가동률도 정유와 화학 산업에서 뚜렷한 하락이 관측되었다.[6] **건설업**의 경우, 건축자재 수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일부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다만, 건설업은 반도체 공장 건설이 확대된 데 힘입어 건설 기성이 소폭 증가하는 등 전쟁의 부정적 영향에도 부진이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3) 유가와 불확실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Bloom (2009), Ordóñez, Sala and Silva (2011), Leduc and Liu (2016), Chodorow-Reich (2014), Ghosal and Ye (2015) 등 참조
4) 자세한 내용은 '**<참고> 비용(유가)·불확실성 충격의 생산 및 고용 영향**' 참조
5) 다만, 금번 전쟁은 6.17일 미·이란간 MOU 체결 이후 비용충격과 불확실성이 과거보다 빠르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6) 전쟁 이전(26.1~2월 평균)과 이후(26.3~5월 평균)의 가동률 지수(계절조정)를 비교해 보면, 정유는 110.3에서 91.9로, 화학은 88.6에서 84.6으로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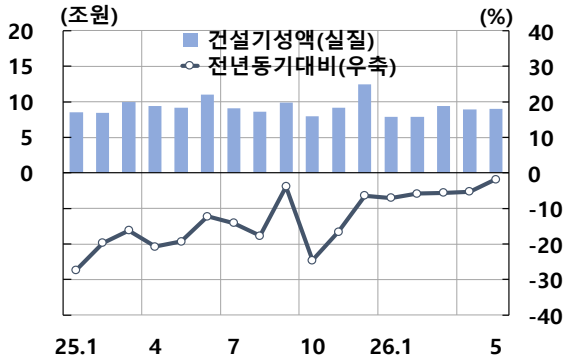
생산감소는 정유와 화학 산업에서 가시적이었으나, 여타 산업은 뚜렷하지 않음

[그림 14] 전쟁 전·후 생산지수 비교[1)]



주: 1) 산업생산지수(원계열)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평균, 원의 크기는 생산액 상대적 크기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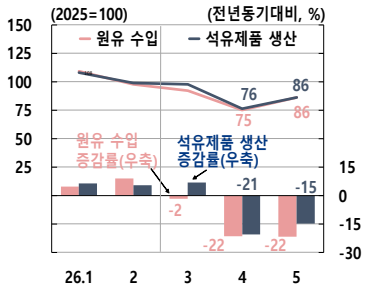
[그림 15] 건설기성액 및 증가율



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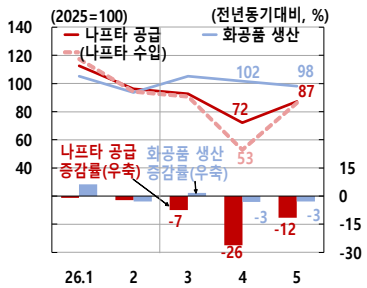
원유·나프타 공급차질로 석유제품·화공품 생산차질 발생

[그림 16] 원유 수입량·석유제품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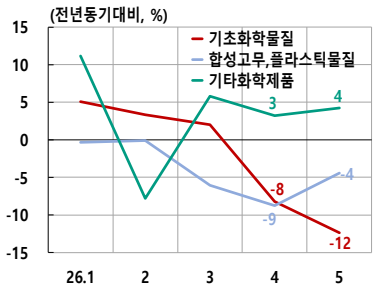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한국석유공사

[그림 17] 나프타 공급량[1)]·화공품 생산량



주: 1) 수입과 국내생산(수출용 나프타 생산분 제외)의 합
자료: 국가데이터처, 한국석유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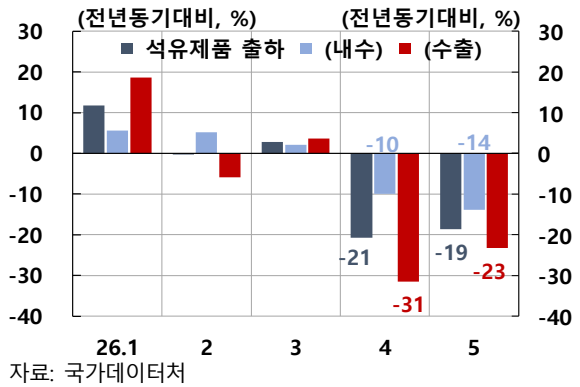
[그림 18] 화학 세부부문별 생산량



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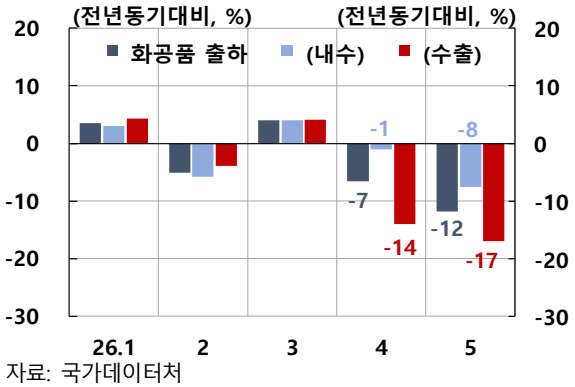
석유제품·화공품 생산차질의 영향은 내수보다 수출에 집중

[그림 19] 석유제품 출하량 및 내수·수출



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20] 화공품 출하량 및 내수·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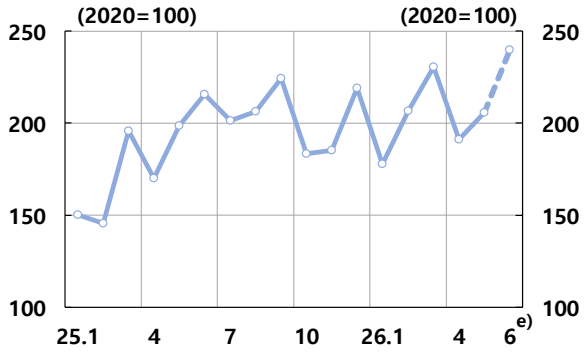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8. 중동전쟁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거나, 오히려 수혜를 받고 있는 산업도 있다. 반도체 산업은 주요 원자재의 대체 수입처 확보와 재고 활용을 통해 생산차질 없이 호조를 지속하였다.[그림 21] 이스라엘에서 주로 수입하는 브롬은 당초 우려와 달리 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헬륨은 기존 수입처였던 對카타르 수입은 크게 줄었지만 대체 수입처인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확대되었다. **철강·금속**비철금속 포함의 경우 중동 국가들의 생산 및 수출 차질에 따른 반사 이익도 일부 나타났다.[그림 22] 중동지역이 전세계 알루미늄 생산의 약 8~9%를 차지하는데, 전쟁에 따른 생산시설 손상과 물류 차질로 글로벌 알루미늄 수급상황이 타이트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의 수출 여지가 확대되고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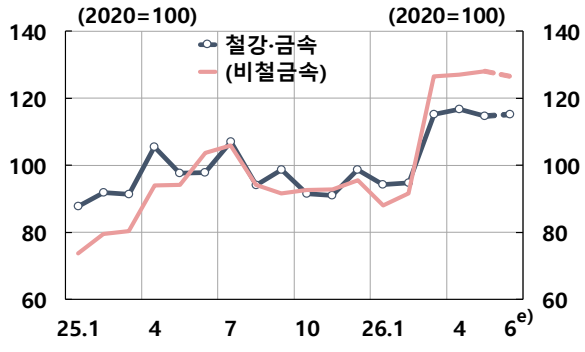
반도체는 생산차질 없이 호조 지속, 비철금속은 반사 수혜

[그림 21] 반도체 수출물량



자료: 한국은행

[그림 22] 철강·금속 수출물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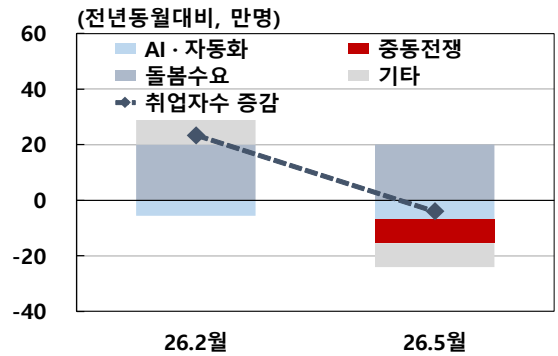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9. 반면 고용의 경우에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보다 빠르고 크게 나타났다.[7] 4월에는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내수관련 서비스업 고용이 주춤하였으며, 5월에는 비용 충격의 영향이 가중됨에 따라 전체 고용이 감소로 전환한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23] 비용 상승으로 부담이 크게 늘어난 일부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의 고용 감소세가 확대되었으며, 운수업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그림 24] 특히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서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그림 25-26]

5월 취업자수는 중동전쟁 영향 등으로 감소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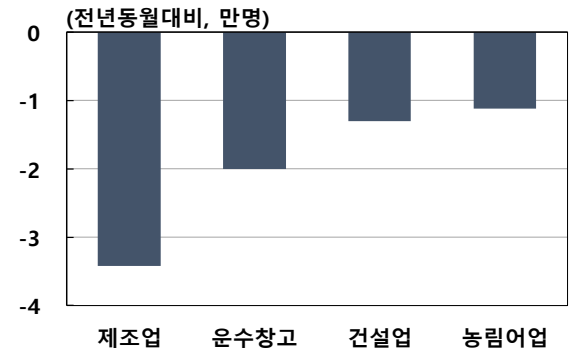
[그림 23] 취업자수 증감 요인 기여도 추정[1)2)]



주: 1) 기타에는 산업 특이요인, 기저효과 등이 포함
2) 기여도는 산업별 추세-순환 등을 활용하여 추정
자료: 국가데이터처, 저자 추정

생산 비용 부담이 큰 업종에서 전쟁 이후 고용 위축

[그림 24] 산업별 중동전쟁 이후 고용 변화[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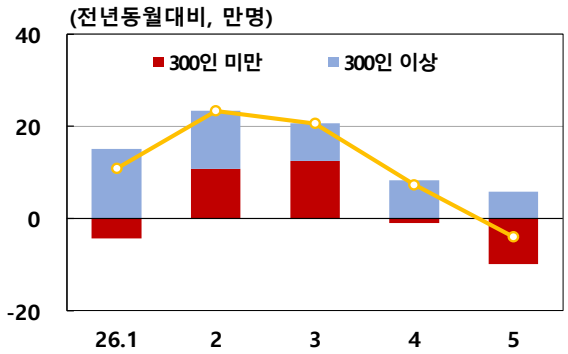


주: 1) 취업자수 증감 격차(26.5월-26.1~2월 평균)
자료: 국가데이터처, 저자 추정

7) 이는 미 관세정책 등으로 지난해부터 대외 불확실성이 이미 높은 수준이었던 데다,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업황부진이 누적되면서 기업들의 충격 흡수여력이 약화된 영향으로 판단된다.

중소기업30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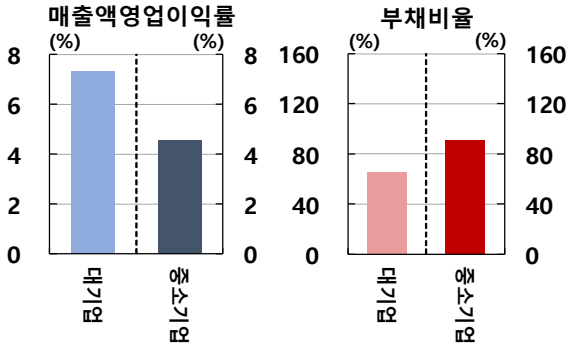
[그림 25] 기업규모별 취업자수 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

제조업 중소기업,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

[그림 26] 제조업 경영상황1)



주: 1) 2025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속보 기준)
자료: 한국은행

향후 주요 산업과 고용은 어떤 회복 흐름을 나타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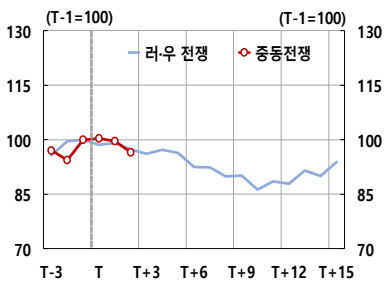
러·우 전쟁 시기와의 비교

10. 러·우 전쟁 발발 당시에 비해서는 최근 국내 산업여건이 보다 우호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금번 중동전쟁은 유가 충격에 전례없는 공급 차질까지 더해졌음에도 생산 감소가 러·우 전쟁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았다.[그림 27] 또한 러·우 전쟁 발발 당시에는 급격한 글로벌 긴축 등으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제조업 생산이 부진을 지속하였다.[그림 28] 반면, 최근에는 AI인프라 투자 등으로 인한 반도체 호조와 그에 따른 수출·내수의 개선 등 성장동력이 양호하다는 점에서 회복 여건이 러·우 전쟁 때보다 우호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11. 고용의 경우, 러·우 전쟁 당시에는 팬데믹 이후 경제활동 재개로 호조세를 나타내었다.[그림 29] 최근에는 이러한 특이요인이 없으나 금번 전쟁의 영향이 일부 산업으로 국한된 데다 내수 개선세가 지속되는 등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취약부문의 업황부진이 누적된 점 등은 회복 속도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생산은 러·우전쟁 초기와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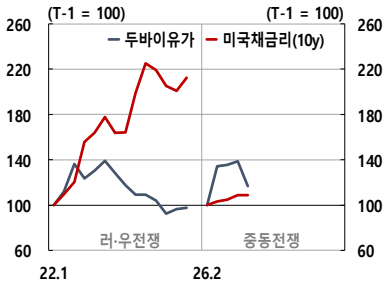
[그림 27] 전쟁별 제조업 생산1)



주: 1) 계절조정지수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금융여건은 러우전쟁 때보다 우호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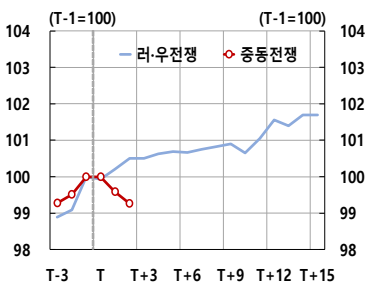
[그림 28] 전쟁별 금융환경1)



주: 1) (T-1)-(T+12) 기간중(T=발생월)
자료: 한국석유공사, Bloomberg, 한국은행

고용은 러·우전쟁 때와 상이

[그림 29] 전쟁별 고용



자료: 국가데이터처

향후 전망#

미·이란간 종전 협상을 위한 MOU가 체결되었음에도 최근 군사적 충돌이 재발하는 등 향후 중동사태 전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본고의 전망은 중동상황이 점진적으로 수습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졌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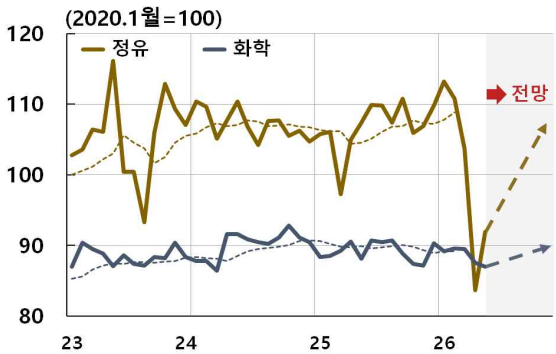
12. 정유, 화학 등 중동전쟁의 영향을 받은 산업들은 하반기중 점차 회복되겠으나, 그 속도는 물류 및 에너지 인프라 정상화 속도에 좌우될 전망이다.[그림 30] **정유** 산업 생산은 6월중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되면서 당분간 반등 흐름을 보이겠으며, 이후에는 통항량 회복 속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화학**은 나프타 공급 부족이 완화되면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구조재편이 계속되면서 업황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의 경우는 전쟁으로 높아진 공사비 단가로 인해 부진 완화 속도가 비교적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13.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산업들도 있다. 방산은 중동전쟁 이후 각국의 방위력 강화 기조와 국내 제품의 높은 경쟁력이 맞물리며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조선업**의 경우에는 중동국가들의 직접 수요는 아니지만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수요 확대에 따라 원유, 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을 중심으로 수주 증가가 예상된다.

14. 고용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완화, 반도체 호조로부터 파급된 내수 개선에 힘입어 회복세를 재개할 전망이다.[그림 31] 회복속도는 중소기업 등의 업황부진 누적에 따른 고용여력 소진, 긴축적 금융여건 등으로 비용상승 충격이 당분간 영향을 미치면서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 협상 지연, 일부 기업 구조조정, AI 영향 가속화 등도 하방 리스크로 잠재해 있다.

향후 정유·화학 산업은 점차 회복하겠으나, 회복정도는 핵심 원자재 물류 정상화에 따라 좌우될 전망

[그림 30] 생산 회복 전망[1)]



주: 1) 점선은 지수평활법(23.1~26.2월)을 적용한 추세
자료: 국가데이터처, 저자 추정

향후 고용도 회복세를 재개하겠으나, 회복 속도는 완만할 전망

[그림 31] 고용 회복 전망

자료: 국가데이터처, 저자 추정

종합 평가

15. 중동전쟁이 국내 산업 경기에 미친 영향은 당초 우려보다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① 정유·화학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으나 기업과 정부의 대응에 힘입어 여타 산업으로의 파급은 크지 않았다. ②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는 IT 부문에 대한 공급 차질은 나타나지 않아 반도체 생산과 수출은 호조를 지속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중동전쟁은 정유·화학 등 일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IT 호조에 힘입은 경제전반의 성장세를 크게 제약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6. 반면 고용은 중동전쟁의 영향을 예상보다 빠르고 크게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비용충격이 가중됨에 따라 완충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부진완화 흐름을 지속하던 고용 개선세가 약화되었다.

17. 향후 중동상황이 진정될 경우, 국내 주요 산업 경기는 공급망 리스크 완화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글로벌 AI 투자의 수혜가 IT 부문에 그치지 않고 철강·금속, 기계 등 여타 부문에도 일부 파급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비IT 부문** 경기흐름은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전후 복구 과정에서 발생할 중동지역 수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건설, 방산, 조선의 경우 새로운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고용**의 경우에도 지정학적 불확실성 완화, 내수 개선에 힘입어 회복하겠으나, 회복 속도는 완만할 전망이다.

18.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면서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이 정유·화학뿐 아니라 여타 산업으로까지 파급될 수 있다. 고용도 취약부문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면서 회복세가 제약될 전망이다.

<참고> 비용유가·불확실성 충격의 생산 및 고용 영향

(충격구성) 비용유가 충격은 유가실질 WTI 기준가 직전 12개월 최고치를 초과하는 경우를 충격으로 식별하였다Hamilton, 1996, 2003; Leiva-León *et al.*, 2026. 유가충격에는 수요충격에 기인한 부분도 포함될 수 있어 부호제약을 활용한 SVAR 모형Kilian(2009) 등으로도 추정하였는데 추정결과는 대체로 일치하였다. 지정학적 **불확실성 충격**은 Caldara & Iacoviello (2022)의 지정학적 리스크 지수Geopolitical risk index를 사용하였다. 해당 지수는 주요 신문의 전쟁, 테러 등의 보도 비중을 집계한 텍스트 기반 지수이다. 두 충격을 표본기간(2000.1월~2025.12월) 내 표준화하였다.

(추정모형) Jordà(2005)의 국소투영법Local Projection을 따라 다음 식을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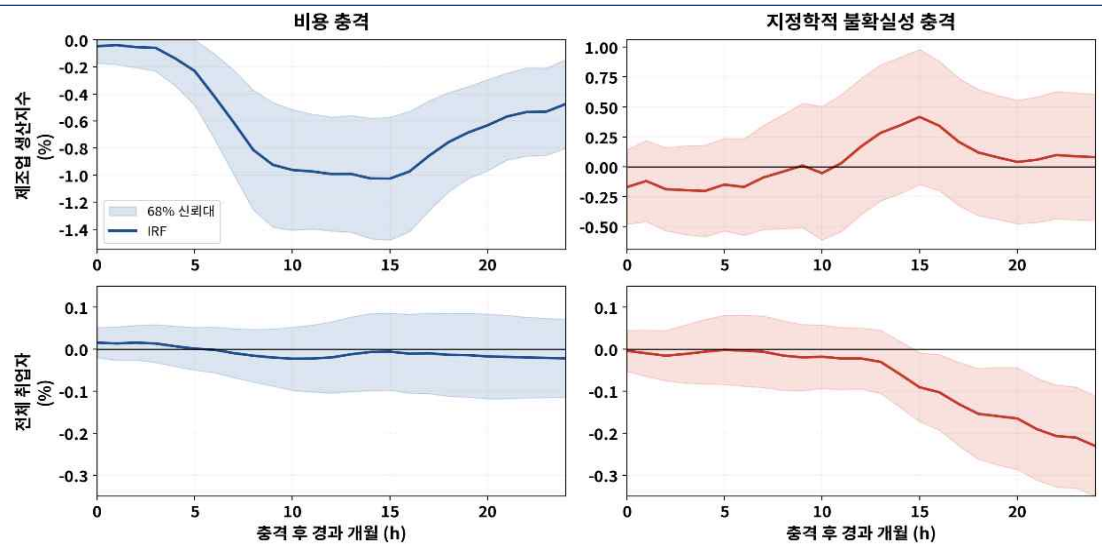
$$y_{t+h} - y_{t-1} = \alpha_h + \beta_h^C S_t^C + \beta_h^U S_t^U + \Gamma_h' X_{t-l} + \theta_h D_t + u_{t+h}, \qquad h = 0, 1, \cdots, 24$$

(단, y는 log(제조업 생산지수 또는 취업자수)×100, S_t^C는 비용cost 충격, S_t^U는 불확실성uncertainty 충격, X_{t-l}는 종속변수 및 충격의 1~3개월 시차lag, D_t는 팬데믹(2020.1월~2021.12월) 더미),

β_h는 각 충격이 1 표준편차만큼 발생했을 때 충격이 없었을 경우와 비교해 t-1 시점 대비 t+h 시점까지 종속변수가 얼마나 다르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누적 반응(%)이다.

(추정결과) 비용유가 충격은 제조업 생산을 유의하게 감소시킨 반면, 전체 고용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이는 기업들이 비용 충격을 근로시간 조정, 가격 조정 등으로 일부 흡수하였음을 시사한다. 다만, 충격 대응 여력이 제한적인 중소 제조업체들은 비용 충격 이후 고용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2] 참고. **불확실성 충격**은 시차를 두고 고용을 감소시켰는데, 이는 기업들이 충격 발생 초기에는 기존 인력을 유지하다가 점차 신규채용 보류, 결원 비충원, 계약종료 등으로 인력을 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제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불확실성 충격이 당기 생산활동보다는 투자, 채용 등의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경로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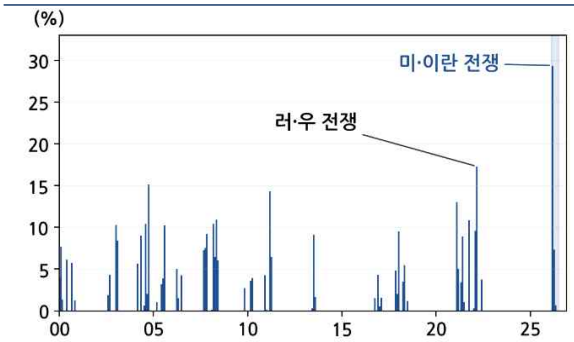
[그림 32] 비용(원가)·지정학적 충격에 대한 생산 및 고용 반응1)2)



주: 1) 음영은 68% 신뢰구간
2) 실선은 각 충격이 1 표준편차 발생시 충격이 없었을 경우 대비 각 변수의 수준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누적 충격반응함수(%)
자료: 저자 추산

다만, 이러한 추정결과는 과거(2000~2025) 평균적 반응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번 중동전쟁의 유가 충격추정은 과거 표본기간에 관측된 충격보다 큰 수준이었으며,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중동지역 내 갈등 지속으로 2025년중 이미 높은 수준이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 지수에는 미 관세 등 통상 관련 불확실성은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기업이 체감하는 불확실성은 더 높았을 것이다. 더욱이 중소기업은 업황부진이 누적되면서 과거보다 충격 흡수 여력이 약화된 상태였다. 이러한 여건은 금번 충격 이후 고용 감소가 과거보다 빠르고 크게 나타난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생산은 기업과 정부의 대응에 힘입어 이번 전쟁 영향이 비교적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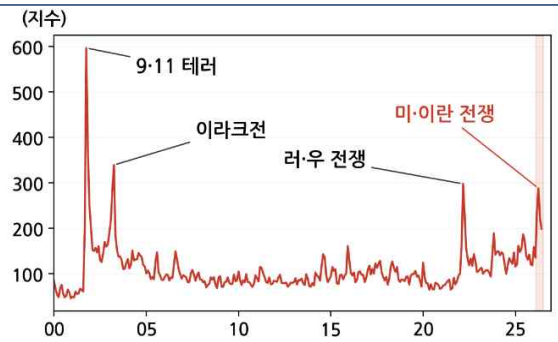
[그림 33] 유가 충격[1)]



주: 1) $100 \times max\{0, \ln P_t - \ln(\max(P_{t-1}, \cdots, P_{t-12}))\}$

자료: Leiva-León *et al.* (2026), FRB of Boston

[그림 34] 지정학적 불확실성 충격



자료: Caldara and Iacoviello (2022), GPR Index data